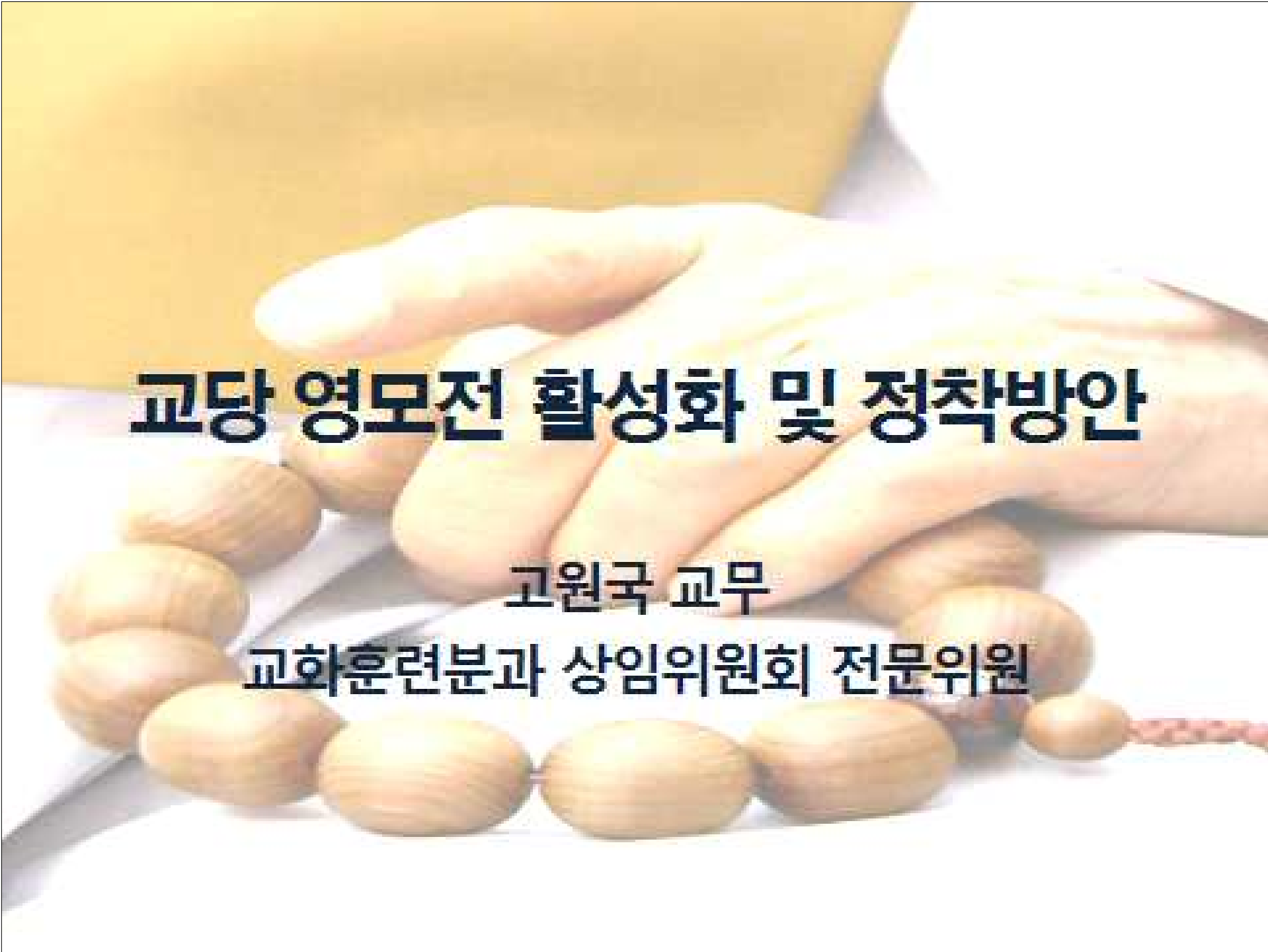




교당 영모전 활성화 및 정착방안

고원국 교무

교화훈련분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의장단협의회 회의록(원기92.3.22)

- 의장은 각 교당의 영모원의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심
- 정식으로 연구하여 통일된 구성이 되도록 해야 하고 구체화되면 안건으로 수립하고 공의절차를 거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교화훈련부에서 연구하라고 지시하심

수위단회 공문

(원수사 161.1-25, 원기92.10.17, 교당 영모전 정착 방안 연구)

- 원기92.10.18
- 교화훈련 상임위원장(고원선), 공문 접수 후 상임위원회 논의 거쳐 전문위원에게 이관 요청
- 전문위원과 교화훈련부에서 공동연구하기로 협의
- 원기92.12.24 상임위원 및 전문위원 모임에서 중간검토

세부연구내용

- 교당 건축시 영모전을 건설하게 하신 뜻
- 교당 영모전 운영 실태파악
- 영모전을 통한 교화연계 모색
- 영모전 운영의 효율성 방안 모색
- 영모전 건립 및 운영의 새로운 모델 제시

교당 건축시 영모전을 건설하게 하신 뜻

- ① 대중사 이하 역대 선령 열위의 법은(法恩)을 영원히 사모하기 위하여
- ② 과거의 번잡한 건묘(建廟) 설위(設位)의 폐단을 없애고 한 묘우 안에 많은 수의 입묘를 쉽게 하여, 한량 없는 세월에 모든 선령을 공동 추모하기 위하여

영모전(永慕殿)

- 정의: 대종사 이하 역대 선령 열위의 법은(法恩)을 영원히 사모하기 위하여 건설한 묘우(廟宇)
- 설위(設位): 대종사 위패 외에는 개별적 위패를 봉안하지 않고 공동 위패를 봉안
- 취지: 과거의 번잡한 건묘(建廟) 설위(設位)의 폐단을 없애고 한 묘우 안에 많은 수의 입묘를 쉽게 하여, 한량없는 세월에 모든 선령을 공동 추모하자
- 보관품목: 매대(每代)에 작성한 [법보(法譜)]
- 교당 보관품목: [법보] 영인본(影印本)
- 영모전이 별동(別棟)으로 건설되기 전에는, 대각전 불단에 임시로 묘위를 설위하고 향례를 올릴 것

영모원(永慕園)

- 영모전의 주위 지역이나 경치가 수려한 지대에 조성한 대종사 이하 역대 성현의 기념 공원
- 대종사의 성탑과 역대 종사 및 특별 유공 제사(諸師)의 기념탑과 일반 유공인의 공동 기념탑 등을 건립 / 형편이 허용되면 탑 안에 유골 등을 봉안
- 근처에는 기념관을 건축하고 문집, 유물, 탑보(塔譜) 등을 보존하여 후진으로 하여금 언제나 참배하고 영원히 추모하게 할 것

영모전의 역사

- 원기33년(1948) 4월 26일 총대회(總大會)에서「원불교 교헌」정식 통과/ 관련내용 - 「영모전을 건설한다」 「영모전 향례는 연중 2차씩 거행한다」
- 원기37년(1952) 7월 [예전(임시판) 발간/ 관련내용 - 제3편 교회의 예 / 영모전, 영모원 대향(大享) 등이 새로 편입 / 영모전 대향 예법: 기념일과 기념 묘우(廟宇)를 통일하여 대종사 이하 역대 열위 선령께 공동 향례를 받들도록 제정
- 원기38년(1953) 6월 1일 새 대향 예법에 의거 일제히 하향(夏享) 거행
- 원기41년(1956) 8월 영모전 묘위법 일부 개정 / 종사위 위패를 대종사 위 정면 중단에 설위하고 그 좌편에 대봉도 위 그 우편에 대호법 위를 설위하기로 개정
- 원기49년(1964) 4월 중앙교의회에서 개교 반백년 기념사업회 발족 / 사업종목 중 영모전 건립 포함
- 원기55년(1970) 중앙총부에 영모전 착공
- 원기56년(1971) 10월 영모전 준공(영모전 법이 「교헌」에 규정된 후 22년만의盛事)
- 원기56년(1971) 10월 7일 영모전 낙성 및 묘위 봉안 봉고제 거행
- 원기66년(1981) 5월 19일 영산성지에 영모전 준공
- 원기75년(1990) 4월 중앙총부 영모전에 일원상 봉안
- 원기88년(2003) 9월 22일 영산성지 영모전에 일원상 봉안



<그림1> 영모전(중앙총부)



<그림2> 영모전(영산성지)

영모전 거행 교의(敎儀)

봉고식, 대재, 입묘식

교당 영모전 운영 실태

<대전충남교구> 3

- 대전-영정실
- 금산구봉-영모전

<중앙교구> 7

- 경암,남중,궁동,문화,이리-영모전
- 동영-추모실 / 낭산-이름없음

<영광교구> 3

- 군남,백수,영광-영모전

<서울교구> 1

- 개봉-영모전

<광주전남교구> 3

- 여수,여천,녹동-영모방

<경남교구> 1

- 삼랑진-영모전

<제주교구> 3

- 제주,표선,원광,요양원-영모전

<강원교구> 2

- 강릉,양양-영정실

원기93년 2월 4일 현재, 8개 교구 23개 교당 보고접수

[원불교신문] 제1226호(원기89년 1월 9일) 교당내 영모전 설치로 의식교화 물꼬튼다

의식교화를 위해 교당내 영모전 설치를 하는 일선교당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봉불을 한 중앙교구의 궁동선교소를 비롯(본지 1142호) 기존 광주전남교구 여수교당도 대각전과 접한 교당 3층의 한 방에 영모전을 설치하고 '영모방'이라 이름지었다. 이곳은 교당 교도 및 관련 열반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언제나 이들의 천도를 축원하며 가족들의 추모마음을 되새기는 역할을 한다.

여수교당(교무 최세종)은 지난해 말 영모방을 설치하여 신년부터 운용에 들어가 신앙의 차원을 한단계 끌어 올렸다. 최 교무는 "영모방 설치에 교도들의 신앙심을 더욱 깊게 하고 영가를 위해서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교도와 만남의 기회가 늘어나고 가족들을 교당으로 이끄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천도와 사후관리라는 의식을 통해 교화의 한 물꼬를 터간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해 여수교당의 한 교도는 “힘들거나 그리움에 사무칠 때면 열반하신 아버님이 모셔진 교당을 찾아 명상에 잠기고 교무님과 문답을 할 기회가 주어져 좋다”며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고요함 속에서 가족들의 신앙적 정서가 더욱 높아 간다”고 말했다. 매주 법회에 참여하며 영가에게 인사를 하고 보니 자녀들에게도 효(孝)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말도 덧붙였다.

교당의 영모전 설치는 의무적인 요건이 아니지만 그 긍정적 효과에 비추어 볼 때 교당의 공간적 여건이 허락되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좌산종법사는 여수교당의 의식교회 의지를 보고받고 ‘영모방’이란 이름을 내렸다.

대각전과 소법당 등 기존 교회시설을 이용했던 사후 교도관리가 영모전 설치로 신앙수행공간이란 교당 이용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의식교회를 위해 교당내 영모전 설치는 더욱 늘어나고 긍정적 교회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원기87년 궁동교당 영모전



원기88년 대전교당 영정실



원기189년 여수교당 영모방



북동교당 영모방



표선교당 영모전



원광요양원 영위전(좌), 영모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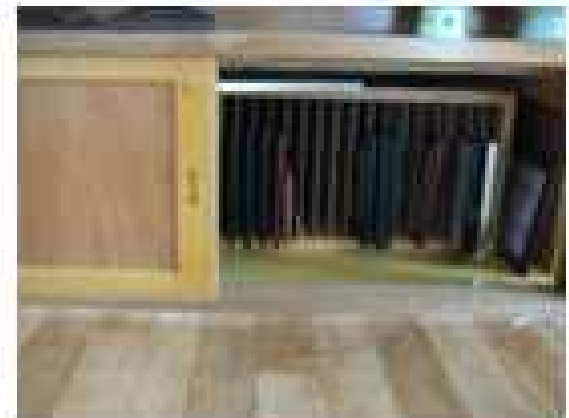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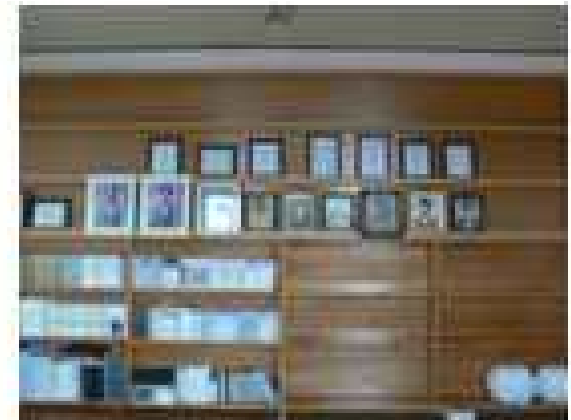
제주교당 영모전



개봉교당 영모전



군남교당 영모전



[원불교신문] 제1249호(원기89년 7월 2일) 교당 영모전 조성, 현장교화에 도움

‘의식교화를 통한 교화활성화 방안’ 금년도 교화연구소 정기연구발표 주제이다. 원불교의 강점인 의식교화를 살려 교화로 연결하자는 취지이다. 21일 중앙총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발표는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현장 교무들이다.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교당 영모전 조성시 개인위패 설위와 납골당 조성 문제. 이인성 교무는 예전정신을 손상하지 않는 대안으로 “첫째 영모전을 영정실로 정의하자, 둘째 교구 중심에 영모전을 건설하여 교당의 개별위패를 공동위패로 이관, 셋째 예전을 수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영모전 조성은 현 교법정신에 비쳐보아 조성이 가능하나 개인위패 설위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원불교신문] 제1380호(원기92년 5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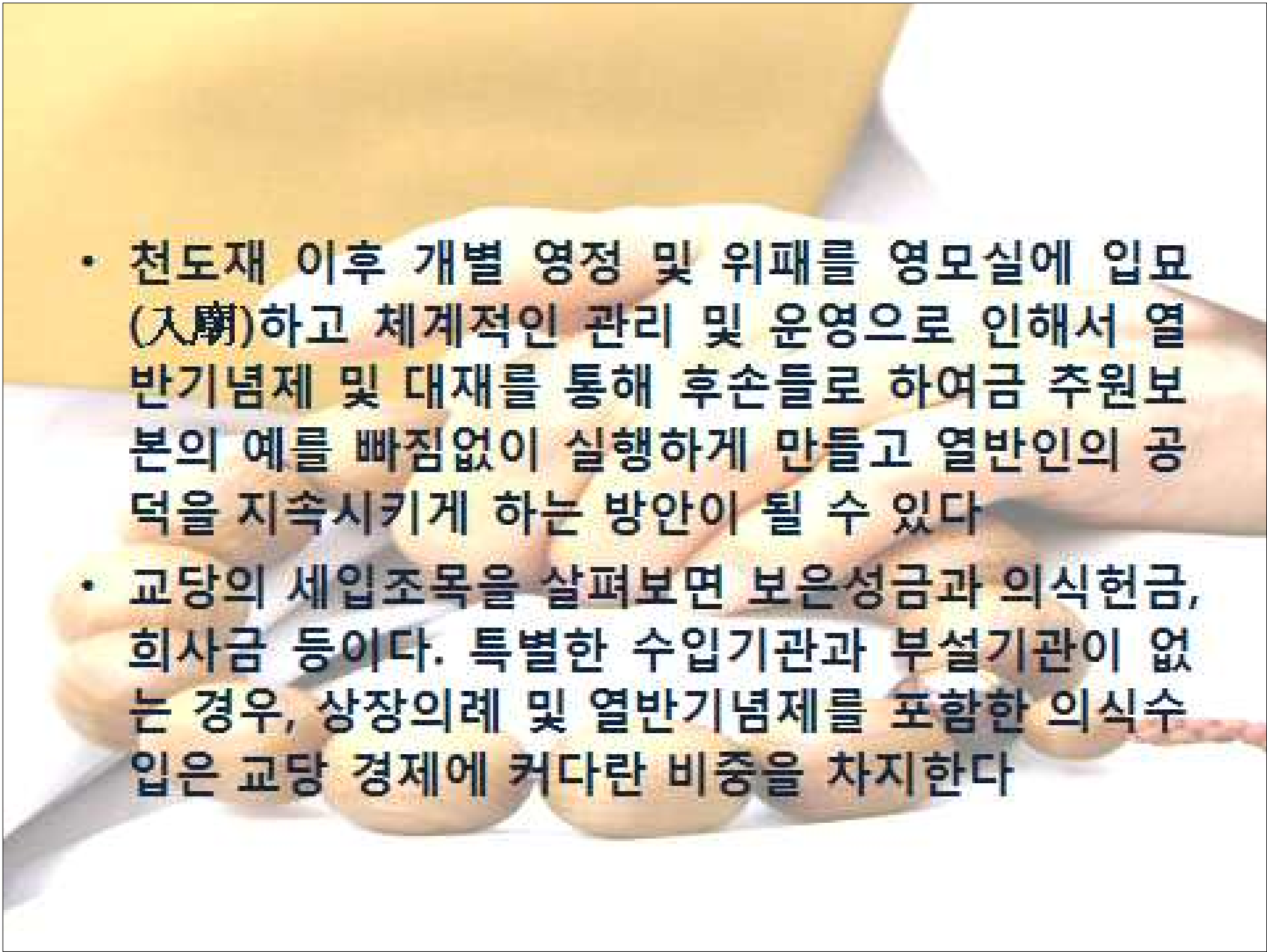
교당건축 표준화 확립

교당 건물을 양식화하여 어느 곳에서든 한눈에 원불교 건물임을 식별하게 하자는 의견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왔다. 또한 현장 근무자들의 경우 교당 건축시 자문 받을 곳이 없어 큰 애로를 겪는 만큼 건축 표준안에 대한 요청을 꾸준히 해왔다. 교정원 문화사회부는 이를 위해 '교당건축 표준화 확립'을 주요정책으로 제시했다.

■ 무엇이 표준화 되나 = 교당 표준화는 전체적인 건축물 형태부터 일원상 상징탑, 법당, 불단, 내부공간, 조경, 음향 등 다방면에 걸쳐 세부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체 적용이 어려울 경우 상징탑 등 일부 적용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의식 교화 활성화를 위한 위패실 또는 영모전 설립과 사회 복지, 교육훈련을 위한 공간도 함께 논의된다.

영모전을 통한 교화연계 모색

- 천도재를 지내면서 마땅히 영정을 모실만한 공간이 없어서 법당 한쪽 창고에 임시 보관한다. 간혹 재주가 분향하러 교당에 오는 경우 몹시 민망해진다. 교당에 영모전을 조성한다면 영가의 역사와 영상을 모시고 교도의 추원보본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의식교화를 통한 교화발전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식수입으로 교당의 영세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 일반교도나 신도들이 바라보는 교당과 영모전은 개개인 가정의 신앙중심 추원보본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싶어한다

- 
- 천도재 이후 개별 영정 및 위패를 영모실에 입묘(入廟)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인해서 열반기념제 및 대재를 통해 후손들로 하여금 추원보본의 예를 빠짐없이 실행하게 만들고 열반인의 공덕을 지속시키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교당의 세입조목을 살펴보면 보은성금과 의식헌금, 회사금 등이다. 특별한 수입기관과 부설기관이 없는 경우, 상장의례 및 열반기념제를 포함한 의식수입은 교당 경제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영모전 운영의 효율성 방안 모색

-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
- 대중을 위하여 공도에 헌신한 사람은 그 노력한 공적에 따라 노쇠하면 봉양하고, 열반 후에는 상주가 되어 상장(喪葬)을 부담하며, **영상**과 역사를 보관하여 길이 기념할 것
- 영정각(影幀閣)을 지어서 공도자들의 **영정**과 역사를 봉안
- 공원식으로써 그 주위를 장엄(莊嚴)하고 중앙에는 **묘각(廟閣)**을 건설하여 영원히 부모 조선(祖先)을 추모케 하는 법
- 열반인의 **영상**과 역사를 미리 봉안하는 법
- 당일 기념 영위의 **영상**을 봉안
- 열반인의 **사진**이나 **위패**를 정결한 실내에 49일간 봉안
- 선생의 **영상**을 우리 교당마다 모시고

- 정산종사 [법어] 예도편

14. 또 묻기를 「영모전 위패가 대종사 이외에는 다 공동 위패를 봉안하였사오니 그 수 많은 선령께옵서 어찌 작은 위패 하나에 공동으로 머무실 수 있사오리까.」 답하시기를 「위패를 봉안하는 것은 선령께옵서 그 위패에 상주해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세계에 계시든지 통하여 조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조감하는 것이야 천리 만리가 무슨 계한이 있으며 천령 만령이 한 곳에 조감하지 못할 것이 무엇 있겠는가. 그런즉 공동 위패를 봉안하는 것이 영계에 조금도 착란하지 않나니라.」

해결과제

- 영모전에 개별 위패를 모시는 것이 현행 [예전]과 [법어]에 다소 어긋나므로 교법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원불교 건축물 및 건축공간 명칭에 사용되는 '전(殿), 원(院), 각(閣), 당(堂), 사(舍), 실(室), 대(臺), 방(房)'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전(殿)	원(院)	각(閣)	당(堂)	사(舍)	실(室)	대(臺)
대각전 영모전	영산원 원광선원 금강원 구정원 청하원 정신원 홍련원	이씨제각 백세각	공회당 대법당 소법당	봉래정사 정화정사	구간도실 본원실 구조실	송대

해결방안

1. 영모전을 대각전과 별동(別棟) 또는 별도 공간으로 건립하는 방안 - 영모전 표준건 축양식 필요
2. 영정각(影神閣) 또는 영정실(影神室)을 마련하여 영정과 역사를 봉안하는 방안

영모전 건립 및 운영의 새로운 모델 제시

1. 교화현장에서 영모전과 영모원을 건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영모전은 별도로 건립되어야 함을 [예전]에 밝히고 있듯이 일부 교당에서 마련한 영모전은 '영정실'(안)이라고 불러야 한다
2. 각 교당에 '영정실'을 마련하는 것은 원불교 교리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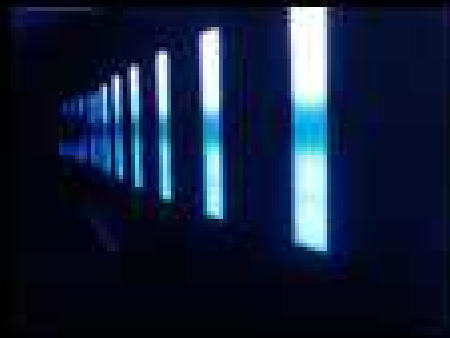
영모전 관련 효율적인 운영방안

1. 교당에는 대각전(大覺殿)과 별도로 '영모전(永慕殿)'을 건립할 수 있다. 단 영모전에는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하고 공동 위패를 설위(設位)하며 [법보(法譜)]를 보관해야 한다
2. 교당에는 대각전, 영모전과 별도로 '영정각(影幀閣)'을 건립하거나 '영모원(永慕園)'을 조성할 수 있다. 단 영정각은 대중을 위하여 공도에 헌신한 공도자의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며, 영모원은 역대 종사 및 특별 유공 제사(諸師)의 기념탑과 일반 유공인의 공동 기념탑 등을 건립하여 조성한다
3. 교당에는 '영정실(影幀室)'을 조성하여 입묘자들의 개별 위패나 영상 및 역사를 보관할 수 있다

교당 영정실 활성화 및 정착방안 예시

●
Memory is...

Concept 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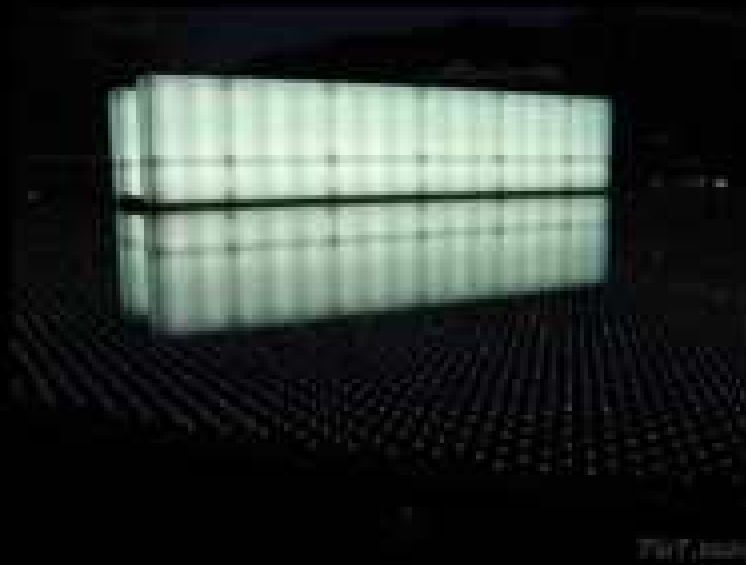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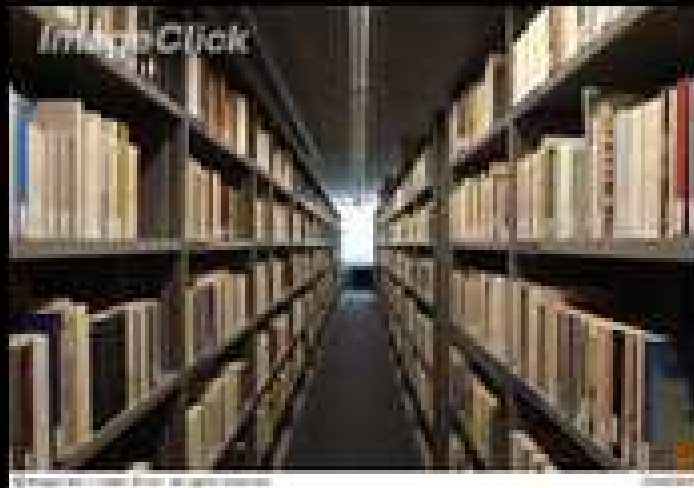


Lighting은 간접 조명이 주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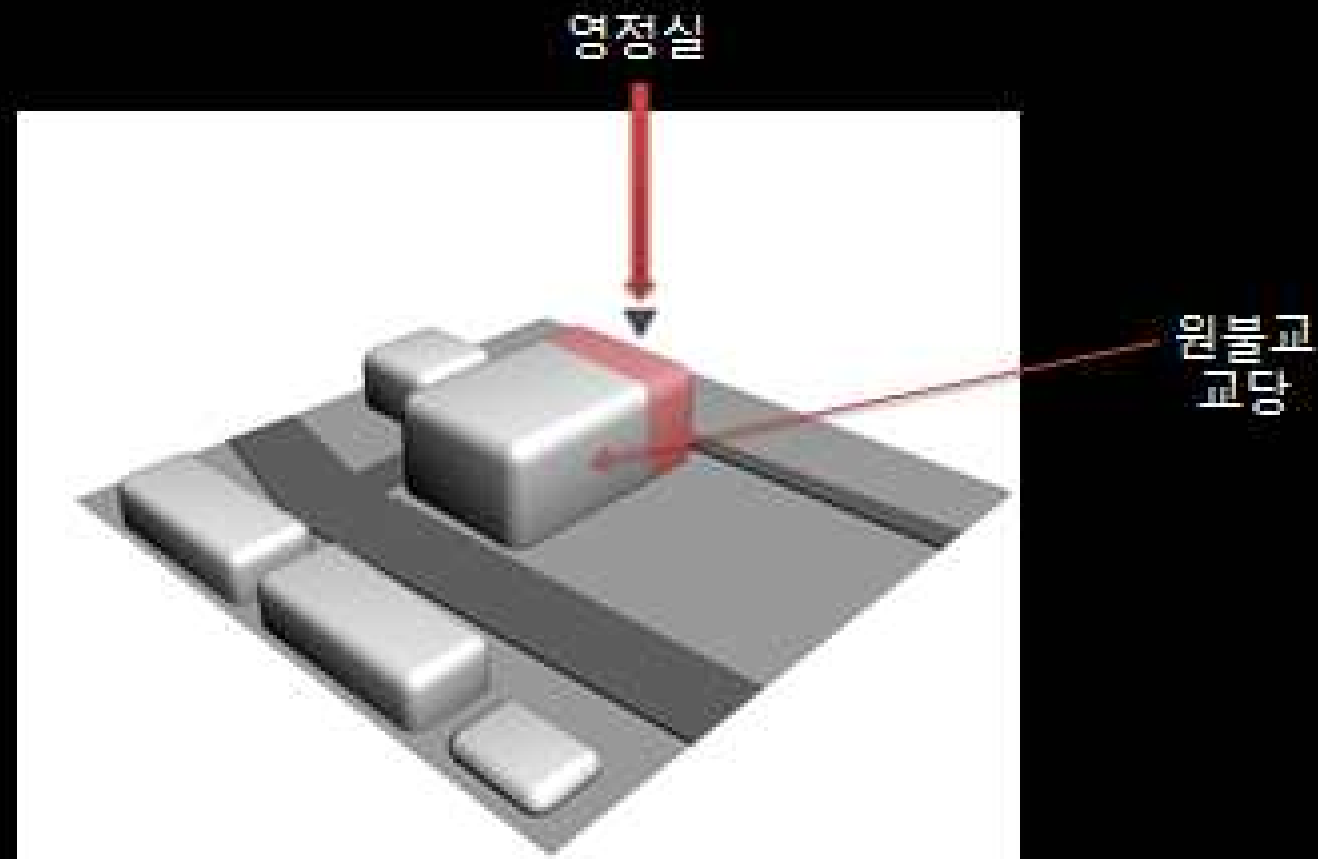
Cave는 심묘하고, 무언가로 빠져들 것 같은 느낌으로 따뜻하면서, 고독함, 그리고 지하공간(死)과 지상공간(生)의 연결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Motif 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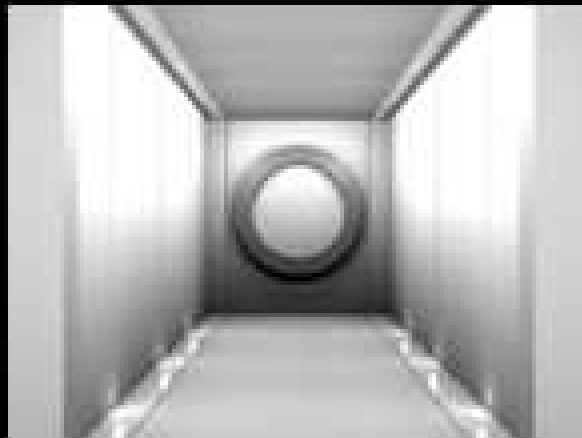


User – cherish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追慕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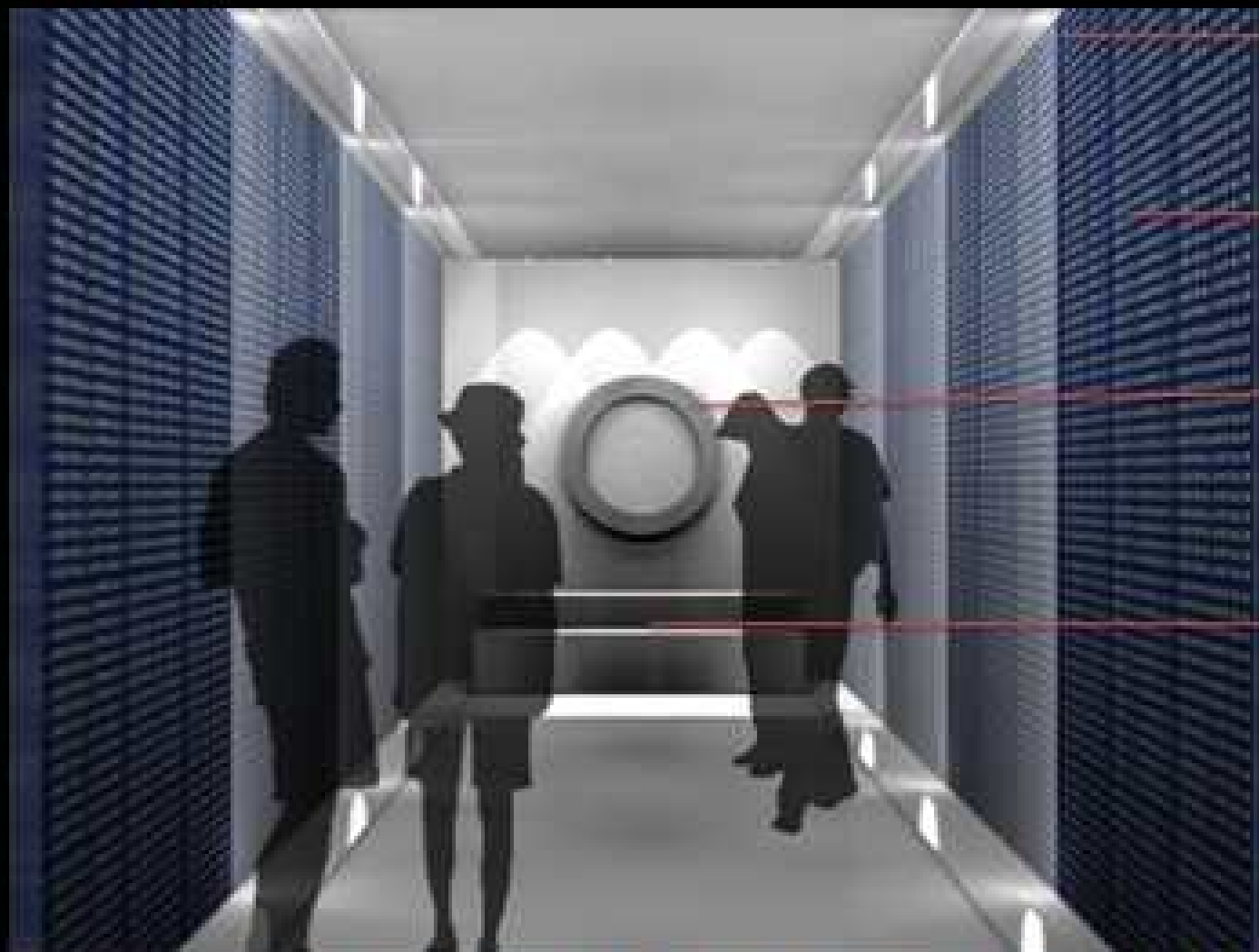
Site analysis – 각 교당의 일부 공간을 이용한 활용 방안



Perspective – solution process



Final - Perspective



간접조명

영가 이름

법신불 일원상

불단

Sound
- 독경 및 선 음악

초모객은 먼저 법신불 일원상에 예를 표하고, 불단에서 향을 피운 후,
각자 조상님의 영가 이름에 앞서 기도문 예를 표한다

Detail image

故 홍길동 - 출생 00.01.01 열반 10.01.01

Stone(marble)

lighting



감사합니다!